

<나의 삶 나의 하나님> **눈섭을 잃어버린 여인**

흰 구름이 정처없이 바닷가를 내려다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닷가 소나무 밑에서 서로 등을 나무에 기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젊은 남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흰 구름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남자는 가방을 하나 메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자는 눈섭이 없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환자였는데 그 흉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썼던거죠.

"제발 날 잊어버려. 난 문둥병자야. 나같은 환자는 소록도에가서 살아야 하는데, 당신까지 문둥병자로 만들기는 싫어"

그러자 눈섭이 솔잎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말했습니다.

"전 제가했던 맹세를 지키기를 원해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에도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전 당신의 겉모습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상함, 그 인간미를 사랑했어요. 저도 어디까지든 따라 가겠어요"

남자는 여인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 바보야. 난 사실 널 사랑하지 않아. 난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와 같이 소록도에 가서 살기로 했던 말이야"

여인은 할 말을 잃고 머뭇거렸습니다. 아마도 심한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그 사이에 남자는 배에 올랐고 배는 곧 떠나 버렸습니다. 여인은 눈물어린 모습으로 떠나는 배를 쳐다보고 있었고, 남자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흰 구름은 비로서, 그 남자가 여인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흰 구름은 안타까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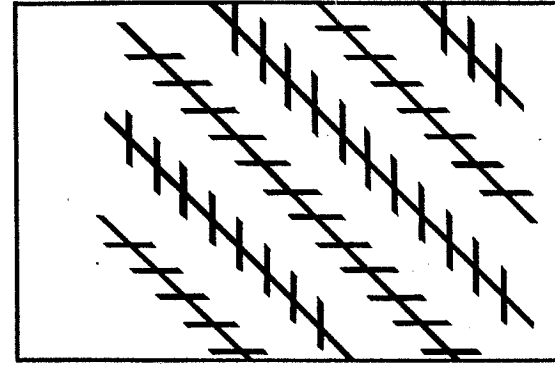
늦은 밤. 소록도로 가는 마지막 배위에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구름은 더 지켜보고 싶었지만 알미운 바람이 흰 구름을 멀리 멀리 날려 버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랜 시간이 흐른후 흰 구름은 다시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흰 구름은 열심히 그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던중 소록도 바닷가 푸른 언덕위에 지게를 풀어놓고 쉬고있는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밀짚모자에 고무신을, 여인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흰 구름은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수건을 풀어 땀을 훔치는 여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솔잎 같은 눈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들바람에 밀려 떠나가는 흰 구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모습의 아름다움은 잃었지만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사랑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잃어버림조차도 아름다운 얻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랍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갈보리교인"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3권 3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8월 12일
☎520-9464/021-292-1639, ☒10 Bur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대각선으로 그어진 선들은 제각기 비뚤어져 보이지만 종이를 들고 옆에서 보면 서로 평행한 선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뚤어져 보이는 이유는 선 위에 그어진 작은 선들 때문입니다.

진리위에 서 있지 않은 채 주장하는 의로움은 오히려 자신을 비뚤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됨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 1:25)"

사람들은 자신의 비만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 산다면 복음을 전하거나 행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비만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같은 영적 비만증 환자가 아닙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 기쁨과 슬픔, 아픔을 나누는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십시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누가복음 18:22>

주 일 예 배

영광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9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4(시편 100)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90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신경화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열왕기하 5:10-14(구 568)	인 도 자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의 사람은(2)"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241장 (마지막절은입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 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8월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 Time	주 일 안 내
5	변지웅	최재학	김종건,지찬영	변지웅,안원희	최정숙,손길숙
12	송정섭	한 건	박영태,정의령	이경석,이선우	김교섭,정희자
19	신경화	한은영	박정자	이영권,이지형	김종건,박정자
26	신선숙	김교섭	박일영,임혜자	인치혁,최병화	빅영태,정의령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찬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예배 12:00	수요예배 7:30 pm	금요새벽기도: 6:00	학생,청년부: 토요 4:00
------------	--------------	--------------	-----------------

교 회 소 식

-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고전-갈라디야: 2명, 에베소서-딤페전(1):3명
- 8.15 청소년 찬양집회: 학생부에서 참석합니다
*일시: 25일(토) 저녁7시
- 사랑 실천"이삭줍기": 다음주일은 사랑 이삭줍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silver coin만 모아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계수를 위해 동전단위로 묶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직분자 선출: 기도와 미흡한 부분 보완위해 조금 더 연기합니다. 죄송합니다.
◆8의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5일		구역예배(10일)
12일	광복기념주일	식사교제
19일		
26일	이삭줍기 봉헌	교사기도회(31일)

<회개와 용서>

'비는 장수 목 벨 수 없다' 제 잘못을 뉘우치고 빌면 아무리 큰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게 된다는 속담이다. 채근담에 '하늘에 가득찬 허물도 뉘우칠 회자 한 글자를 당할 수 없다'했다.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7)하였다. 한 초신자가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를 본 목사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신자가 '여기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하며 거듭거듭 기록된 죄인이란 글자를 가르켰다 한다. 자기가 진정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오히려 회개한 그 죄인을 더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